

육계산업, 서해안시대 꿈꾼다.

□ 취재/김동진 기자



▲4월 15일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천도식품(주)의 건립광경

육계가 과잉생산, 공급되
면 유통은 정상을 벗
어나 생산자를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에 수매·비축시설

의 확보와 전문도계장 건립
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천도식품이 위치한 당진
지역은 150여 농가에서 육

계를 연 1,200만수(농가당
2만수, 년 평균 4회전)를 생
산하고 있는데 이는 1일 3
만수 정도의 육계가 출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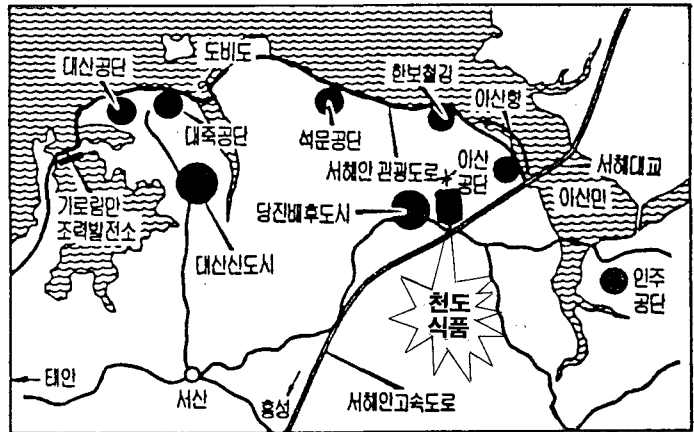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지역에서는 인근 도계장이 없는 관계로 계약사육을 통한 유통이 늘어가고 있으며 교통의 불편함으로 과잉생산될시 생산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당진지역 사육농가의 계열화 구축과 비축시설 확보를 통한 생산자들의 대변을 목표로 4월 15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육계전문도계장인 천도식품(주)(대표이사 정명희)는 생산자 11명이 25억을 투자하여 '90년 발족을 한후 '92년 허가가 나면서 본격적인 도계장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진군 송악면 중흥리에 위치한 천도식품(주)는 총부지면적 3,442㎡에 시설면적 1,645㎡로 1일 15,000수/8시간의 생산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이곳은 교통의 적지로 평가받고 있는데 서울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리던 것이 그림1에서 보듯이 서해안고속도로가 '86년 개통된 후에는 40분 밖에 안걸려 아산만을 중심으로한 서해안



〈그림1〉 서해최대 교역항인 아산만 개발과 때를 같이하여 당진지역의 육계농가들을 위한 유통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천도식품(주)의 위치도

개발에 발맞추어 유통의 편리성과 신선육의 원활한 보급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희 대표이사는 '79년부터 축협에서 14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92년부터 도계장 건립에 적극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화를 위해 우리 지역에 도계장 건립의 필요성을 전부터 느끼고 있었으며 생산자들이 의견을 총합하여 결국 그 뜻

을 이루게 됐다”고 말하는 정명희씨는 생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천도식품을 발전시켜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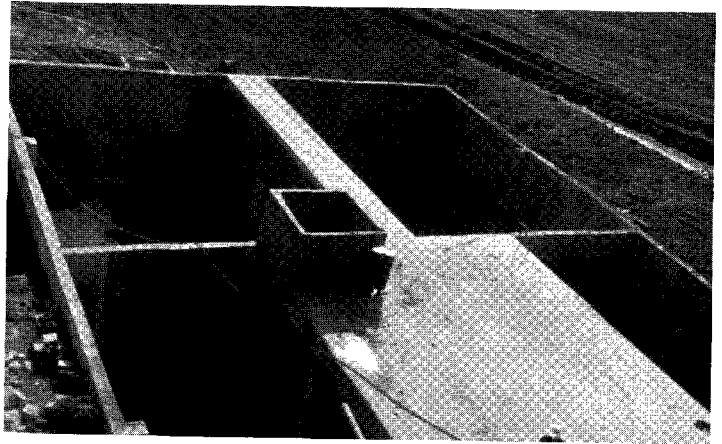
천도식품의 육계사업 구조개선책으로는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가능한 농가를 계열주체를 선정하여 60호 규모로 시작할 계획이다. 실무진 15명에 120~150명의 고용계획에 의해 삼계탕, 부분육 및 가공품을 생산하여 국내 공급 뿐 아닌

표1. 사육계약 규모 및 지역별 배정 계획

지역명	사육 농가수	계약대상농가				계	
		기참여농가		신규계약농가		계	
		농가수	규모	농가수	규모	농가수	규모
당진군	147호	21호	486천수	40호	1,035천수	61호	1,521천수

수출계획까지 꿈꾸고 있는 천도식품(주)는 1층에 가공품 생산과 비축시설, 2층에 주작업실(탈모 등), 3층에는 부분육 처리 및 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인데 앞으로 가공공장(1일 1만수), 종계장(입식규모: 3만수), 부화장(부화능력 월 60만수)까지 체계적인 계열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공장의 특징은 비축시설과 폐수 정화처리 시설인데 80평 규모에 35만수를 저장할 수 있어 수급조절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폐수 정화 시설은 100평 규모에 1일 50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환



▲1일 500톤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

경 오염 기준치가 150ppm 인데 비해 50ppm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환경 공해 측면에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천도식품(주)는 지난 '92년 농림수산부에 계열화 자금을 신청했으나 도계장 시설의 미보유와 자체자금 조

달계획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있지만 체계적인 시설확보를 통해 계열화사업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육계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유통망은 대리점, 군납, 슈퍼마켓, 체인점 및 백화점 등이며 천도식품(주)이 가동에 들어가면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 육계 생산비 절감 및 소비자 가격인하,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소비재 변화대, 유통구조 개선 및 고용효율증대 등의 사업효과를 최대한 살려 육계시장의 발전과 가공식품의 유통신장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꾀할 것을 기대해 본다.

양재



▲정명희 대표이사